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제2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제25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대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67일차 11월 6일 특별 법문 해월스님 해인승가대학장		●84일차 11월 23일 특별 법문 보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97일차 12월 6일 특별 법문 임진스님 청도 운문사 주지		●100일차 12월 9일 불명수지 보살계 수계 법회 혜능스님 전 해인사 울원장
--	--	---	--	---	--	---	---

◆ 일시 : 2013년 9월 1일 ~ 12월 9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천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 법회 전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11월 1일부터 BBS TV에서 백고좌법회 후반부 법회장면을 촬영, 방영합니다.

백고좌법회
방송광고 시간표

- ※ BTN TV - 10시 30분, 14시, 18시, 22시
- 자막 9시 36분, 11시 36분, 13시 30분, 13시 30분, 19시 45분
- ※ BBS라디오 - 08시 52분, 10시 53분, 16시 48분, 22시 3분

법사명단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62일차	11월 1일	도암스님	순천 송광사 강주	71일차	11월 10일	현각스님	원주 성불원장
63일차	11월 2일	변운스님	토굴 정진	72일차	11월 11일	수월스님	서울 극락사 주지
64일차	11월 3일	영일스님	법왕사	73일차	11월 12일	정인스님	중앙 승가대 교수
65일차	11월 4일	덕문스님	통도사 울원장	74일차	11월 13일	광욱스님 (비구니)	토굴 정진
66일차	11월 5일	원디스님	한국 테라와다불교 서울 해피법당 선원장	76일차	11월 15일	연담스님	제주도 천제사 주지
67일차	11월 6일	해월스님	해인승가대학장	77일차	11월 16일	영석스님 (비구니)	동국대 교수
68일차	11월 7일	일선스님	장흥 보림사 주지	78일차	11월 17일	덕진스님	울산 정토사
69일차	11월 8일	원순스님	송광사 인월암	79일차	11월 18일	정운스님 (비구니)	동국대 교수
70일차	11월 9일	진오스님	월봉사 주지	80일차	11월 19일	무진스님 (비구니)	대해노인복지센터관장

법왕사 제2해오름요양원 및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11 | Vol. 234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제25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10월 21일부터 제25회 백고좌법회 49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회향일인 12월 8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제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 도 이재 11월 3일(음. 10월 1일)
삼재 11월 10일(음. 10월 8일)
사재 11월 17일(음. 10월 15일)
오재 11월 24일(음. 10월 22일)
육재 12월 1일(음. 10월 29일)
막재 12월 8일(음. 11월 6일)

※ 재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 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매 재일마다 화심곡, 바라춤, 살풀이, 음성공양하는 스님들을 특별히 모십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라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11

Vol. 234호



- 04 깨침의 향기
마음으로 깨달은 불성이
참된 공덕입니다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8 비술산방
불교는 힘든 세상살이의
버팀목입니다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유무를 여인 '공'의 자리 '진공묘유'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석탑 건립에 적용되는 원리 · 조명래
- 20 명찰순례
부처님 나라로 향해하는 길목 전남 해남 달마산 미황사
- 24 특집 | 화보
과워포럼 주관 제42회 경로잔치 흥겨운 한마당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0 해오름소식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7(서기 2013)년 11월 01일 발행 | 통권 234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강선옥, 고재일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깨달은 불성이 참된 공덕입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땅을 밟고 살면서도
땅을 살피지 아니하고,
숨을 쉬고 살면서도 허공을
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짐이 일생에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하며 보시하고 재를 올리고 하였으니 공덕(功德)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無功德)”라고 하였습니다.

그 넓은 중국 땅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워 불심천자(佛心天子)라고 불렸던 양나라 무제를 보고 달마대사는 어찌해서 ‘공덕이 없다’고 하였을까요?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인 달마대사의 법(法)을 이은 육조 혜능대사가 말하기를, “실로 공덕이 없다는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치 말라. 양무제가 마음이 사되어 바른 법을 모르고 절을 짓고 공양하며 스님에게 보시하고 재를 베푼 것은 그 이름이 복(福)을 구했을 뿐이니 가히 공덕으로 삼을 수는 없느니라. 공덕은 법신(法身) 가운데 있고 복을 닦는데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땅을 밟고 살면서도 땅을 살피지 아니하고, 숨을 쉬고 살면서도 허공을 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오로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즉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여기에다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온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주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가능한 적게 주고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말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꾼이 밥풀 하나로 월척을 낚으려 하듯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생각은 않고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주식투자자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재테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옛말에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곧 적게 주고 많이 받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능력 있고 실력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온다고 합니다. 설사 창고에서 곡식이 썩어나갈지언정 남에게 주고 베풀기보다는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것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부와 권력, 명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바로 양나라 무제가 말했던 것처럼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스님들을 공양하며 보시하고 재를 올리고 하였으니 응당 공덕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세속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에 이르기를, “공덕을 베풀 때에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게 되면 불순한 생각이 움튼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덕을 베풀 것을 헛 신처럼 버려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보왕삼매론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공덕이란 공적(功績)과 덕행(德行)을 합친 말로서 선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고 덕행을 베풀 때에는 과보를 바라서는 아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치르는 상거래와 같이 무엇인가 큰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불합격했으니 배상하라고 요구할 성질은 아닙니다. 갓바위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보시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불자 중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적든 베풀은 좋은 것입니다.

데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사람은 설사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부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재물이 신심의 척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참선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주를 많이 하는 신도보다 알게 모르게 푸대접 받는 것이 오늘의 좋지 않은 풍조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사에 동참하고 시주하는 것은 불자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니 이것으로 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시(布施) 또한 이와 같습니다. 보시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불자 중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적든 베풀은 좋은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베풀 것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는 보시를 무척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베풀 뒤에는 그 베풀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조 혜능대사가 말씀한 바와 같이 불법의 진리는 절을 짓고 재물을 보시하는 등의 물질에 의한 구복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깨달아 불성을 보는 것만이 참된 공덕임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수행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힘든 세상살이의 버팀목입니다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지혜가 모자라는 중생의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생사의 문제,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과 정신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행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고통의 바다'란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면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세상을 살다보면 온갖 험한 경우를 다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혜가 모자라는 중생의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생사의 문제,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과 정신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법당을 찾아와 불보살님께 귀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 다른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 혹은 다른 종교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력은 수많은 생을 두고 자신을 희생해온 공덕으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중생조차 모두 구원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있고, 자신의 이름을 한번이라도 부르면 모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아미타불의 서원도 있습니다. 항상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중생을 위로하는 관세음보살과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치유하는 약사여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피력에 의지하여 중생 하나 하나는 스스로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동지입니다. 지장보살은 성불을 포기하고 지옥에 가서 중생들과 동고동락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일체중생을 다 극락으로 성불시키겠다고 하는 원력을 세우고 보살행을 자처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일체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성불을 유보하고 중생의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것

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과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과 같은 불심으로 그들에게 보시(布施)를 베풀 때입니다.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만 보시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모두 보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따뜻하게 보듬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종교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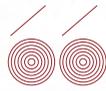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면서 수십 년간 싸워오고 있는 티베트의 힘의 원천도 불교입니다.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그들은 조국을 잃은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언젠가 맞이할 독립을 그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그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종교가 그렇지 못하다면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이기는 만큼 불심도 깊어집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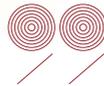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는 진정한 의미의 불교를 알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불심을 실천해 나가갑시다.

유무를 여인 '공'의 자리 '진공묘유'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으며 간사하고 악독해서
 남의 미덕(美德)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소견으로 음해하는 사람,
 그런 이는 천(賤)한 사람이니라.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날 때부터 천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오로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천하지 않은 사람도 되는 것이요.
 <숫타니파타>



불가(佛家)에서는 '만법귀일처(萬法歸一處)'라 하여 태어남이 있기 전, 생명의 근원자리인 실상(實相)조차 공(空)으로 본다. 그런데 그 공은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존재의 무(無)'가 아니라 생명의 법칙, 존재의 법칙이자 참생명의 실상이며 존재를 초월한

초존재(超存在)로서 있다 없다는 유무(有無)를 여인 공(空)이기에 이를 '진공묘유(眞空妙有)'¹⁾라고 한다. 예컨대 허공 중에 있는 공기(空氣)는 무형무색(無形無色)의 빈 공일 뿐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은 이 빈

공에 첨단과학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비행기는 무한히 드넓은 허공간이 있기에 운항이 가능하며 공기를 이용한 바퀴로써 이·착륙이 용이하다. 자동차 또한 공기를 이용한 바퀴가 있으므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차나 비행기는 기름만으로 굴러가거나 날 수 없다. 그래서 타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기가 없다면, 비행기든 차든 무거운 섯덩어리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도 만약 진공(眞空) 포장 없다면 음식물은 쉽게 상할 것이다. 나아가 공(空)개념의 공간(空間) 없이는 제대로 숨을 쉴 수도,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의 평생 꿈인, 공간이 이용한 대지 위에 내 집을 지을 수도, 소유 삼아 가질 수도 없다. 이쯤 되면 광대무변한 저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의 자재한 위신력(威神力)을 실감하게 된다.

현대 과학분야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물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에너지 보존(保存)'²⁾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의 한 예를 들어보자.

가령, 한 바가지 물을 쓰고서 버리면 물은 그대로 없어지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쓰고

버린 물은 흙을 적시며 땅속으로 스며들어 하천으로 빠지면서 다시 냇강으로 모여들며 크고 작은 강물이 되어 굽이굽이 여울지며 바다로 흘러든다.

그런데 하나뿐인 바다는 지구촌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며 천강 만강을 이루는, 헤아릴 수 없이 술한 물줄기를 단 한 순간도 거침없이 받아들이지만 결코 넘쳐나거나 줄어드는 법이 없다. 이상하고 신기하다면 이보다 더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또 있겠는가.

이는 현상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늘거나 줄어들어 없다는 불법의 '반야(般若 : 지혜) 사상이 설하는 부증불감(不增不減)' 즉 공(空)사상을 근거로 한 '에너지 보존법칙'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질량, 정신과 물질을 따로 따로 보았던 이분법적 고전 물리학으로선 이해할 수도 풀이할 수도 없는 부분을,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물리학에 의해서 비로소 자연계의 영역뿐 아니라, 배일에 싸인 유기체(有機體, 생물)가 가지는 생멸(生滅)에 부침하는 윤회 차원의 개념임을 실체에 접근하여 규명한 과학의 힘으로 밝혀진 것이 '부증불감'으로 표현한 현상 세계이다.

대양의 바닷물은 내리찍는 뜨거운 태양 빛과 따뜻한 해류에 증발되면서 수분·수증

1) 유식(唯識)에서 말하는 3성(性)의 하나인 원성실성(圓成實性)에 갖추어 있는 공과 유(有)의 두가지 뜻. 원성실성의 진여(眞如)는 소승에서 말하는 유(有)에 대한 상대적인 공(空)이 아니고, 아집·법집을 여인 곳에 나타나는 묘리(妙理)이므로 진공, 또는 그 체(體)는 생멸 변화가 없는 항상 불변하는 실재이므로 묘유.

2) 에너지(energy) 보존의 법칙 :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완전 차단된 물체나 복사(輻射)의 모임에서는, 그 내부에서 어떤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도, 전체로서의 에너지는 불변이라는 법칙.

기·물안개가 되어 대기권으로 상승시키면 그것은 먹구름·비구름·눈구름층을 이루어 눈·비가 되어 온 산하대지에 고르게 흩뿌리면서 다시 또 천 줄기 만 줄기 무심히 흐르는 강은, 앞서 바닷물이 줄어든 만큼 다시금 채워넣곤 하는 윤회 차원의 생성과 소멸은, 아득한 옛적부터 끝없이 되풀이 해 온 순환의 법칙이다. 이런 ‘에너지 보존법칙’은 부처님이 이미 3000여년 전에 낱알이 밝히어 놓으신 삼천대천세계우주관(宇宙觀)의 한 부분으로, 무릇 하나 가운데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는 다시 하나로 이어지며 맞물리는 만물은, 그래서 부단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바, 즉 “.....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남으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연기법적(緣起法的) 접근방식의 해석 차원에서 원리를 이해하고 다루며 설명하는 현대물리학이다.

이 같은 이치를 정신 영역에 적용하면, 결국 어떤 형태의 ‘옳은 일’은 크건 작건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반대로 ‘옳지 않은 일’은 크건 작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맞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유학을 태동시킨 주희(주자)는 지식인답게 좀 더 신중한 행위로 불교를 바른 시각에서 보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왜냐하면 진정한 현자(賢者)는 소아적(小我的) 이양을 탐하지 않는 까닭에, 관용의 덕으로써, 이미 동양사상과 정신으로 토착된

불교와 유학을 우호 공존케 하여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과 집단의 이익을 꾀하는 대립과 갈등을 불식시키며, 자국의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국익 창출을 위한 사상적 자양분의 매개로 삼아 항상·발전시켰더라면 우리 민족이 겪은 무수한 외침(外侵)의 아픔은 극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희에 의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유학의 편협함이 이 땅에 뿌리내리면서, 공자의 인의(仁義)와 덕치(德治)에 입각한 유학의 좋은 점마저 퇴색시켰다.

뿐만 아니라 만행이랄 수밖에 없는 사원과 괴와 파불(破佛)을 밥 먹듯이 일삼았다. 또 스님들이 수행 틈틈이 자력으로 일군 전담마저 닦치는 대로 몰수했고, 수행승을 노비로 부리는가 하면 강제 환속시켰다. 이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더라도 목인되고마는 날강도보다 더한 몫쓸 짓을 ‘승유억불’의 명분으로 내리 오백년을 지속하며 자행하고서도,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스스로 참회하는 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말과 행이 다른 탓에, 메마른 지식 수준의 학설일 뿐인 유학”은 그래서 끝내 쇠퇴했다.

반면 피를 나는 동족에게 극심한 탄압을 받으며 인동초(忍冬草)마냥 모진 시련을 견디며 도리어 살아남은 것은 불교로서, 이는 다시 말해 오백년을 절치부심 참회함으로써 기다리며 한민족(韓民族)의 심성에 깃든 저력의 불교이기에 와신상담(臥薪嘗膽 : 쉴새 없이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마음 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롭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 마침내 그 회생(回生)이 가능했던 것이다.

자신의 사상적 원류인 종교선사의 은혜를 저버린 주희는, 정주학의 이동이 떠드는 날 조된 가르침의 허황스런 불교편파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또 “불교의 가르침이 다른 무엇보다도 해 끼침이 큰 것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한 북송의 정이가 미친 듯 떠드는 언어도단적 망언조차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 데는, 그를 둘러싼 환경이 인성에 미치는 성장 배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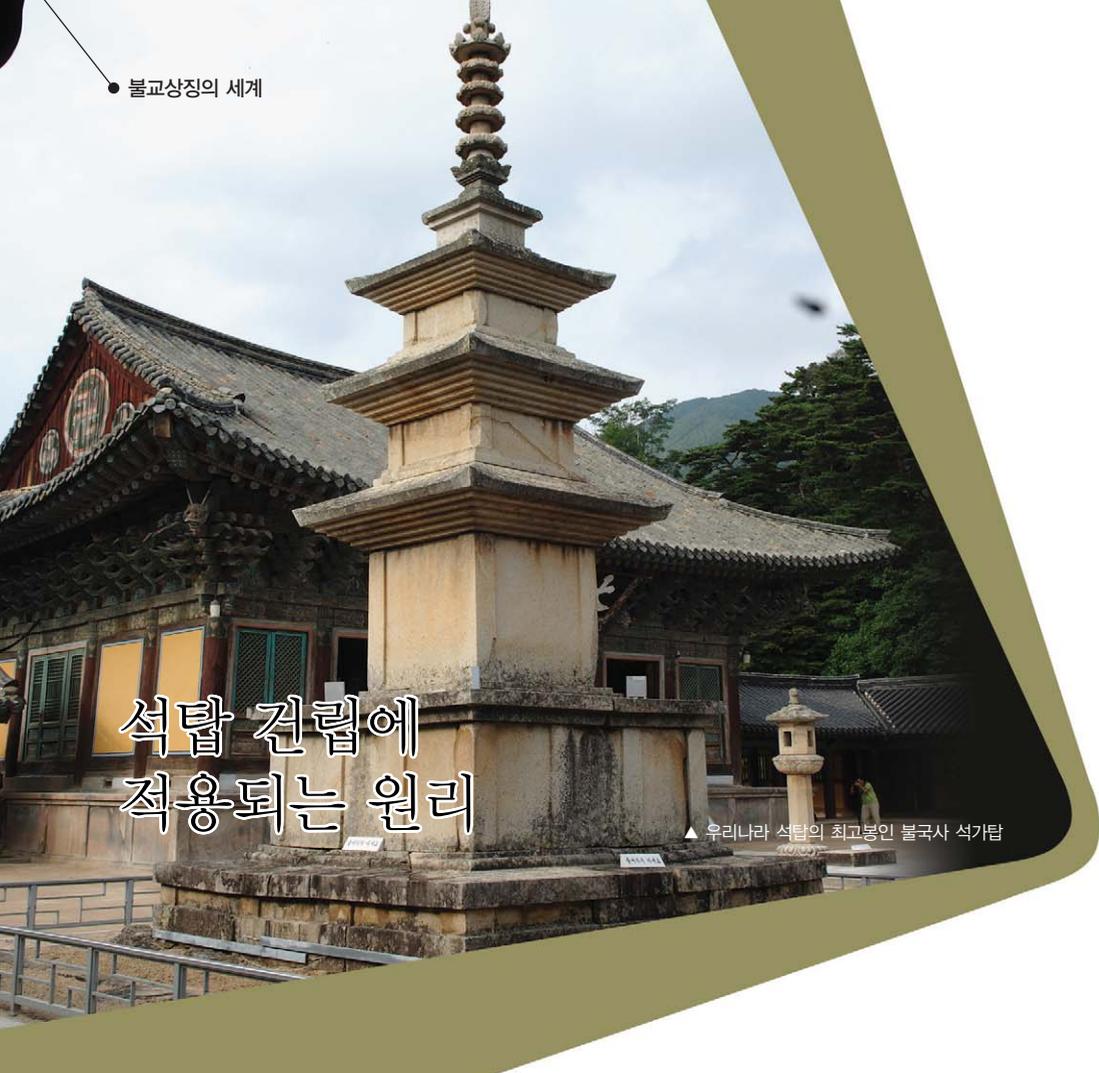
일찍이 당대의 선승 대해 종교선사를 만나 선(禪)에 심취한 주희를 유학으로 끌어들이려 사사(師事)하게 한 이는 앞서 말한 정자학(程子學) 계통의 이동이며 이동은 주희의 아버지 주송(朱松)과 친구이었다. 그런데 주송은 국가관리로서, 사변적 관념학에 젖은 이상주

의적인 이로서, 당시 사대부니 지식계급이니 교양을 갖춘 귀족이니 하며 학자적 가계(家系)를 중시하던 송대 사회 풍조에 편승하여, 야심을 갖고 독자적인 학문의 길을 아들에게 가르쳤으나 유지만 남긴 채 일찍 죽고 만다.

어려서부터 빈곤으로 겪은 어려움을 안주희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고자 입신양명의 길을 걸었다. 주희는 훗날 공·맹을 잇는 유학자로서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상적 체계를 확립한 학자였다’는 명성을 얻지만 부끄럽게 출세와 영달을 위해 옛 스승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돌아서서 비방과 악담을 퍼부었다. 이런 그의 행적을 엿보면, “학문(지식)과 인격(덕)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임을 알게 하는 대목으로, 이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중세 고전물리학을 대표하는 대학자로의 위치에 있었던 뉴턴의 괴팍하고 음울하며 배타적인 성격과도 비슷한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뉴턴도 불우했던 성장기 환경으로 말미암아 괴팍하고 음울하며 배타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1133년 주송은 생을 마치면서, 어린 아들 주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근본 바탕은 거스를 수 없는 ‘선(禪)’에 두되, 그 색채를 가리고 덮기 위해선 공·맹의 언설로 살을 입히고, 네 소견을 덧붙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다른 탐구와 사색을 위한 오랜 침잠(沈潛)의 시간이 필요하다.”



석탑 건립에 적용되는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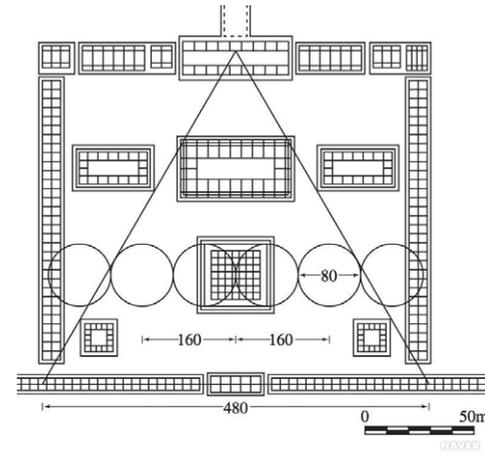
▲ 우리나라 석탑의 최고봉인 불국사 석가탑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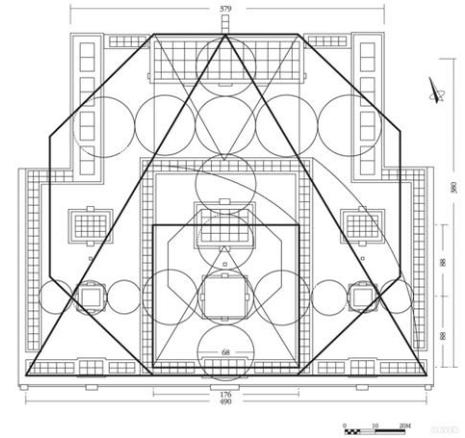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탑을 중심으로 하는 가람배치는 매우 정교한 수치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수리적 원리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교한 수리적 원리에 바탕

탑의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대석(地臺石), 즉 기단부의 크기이다. 기단부의 크기에 의하여 모든 탑은 높이와 너비가 결정된다. 또한 기단부의 크기는 한 사찰을



▲ 황룡사의 배치도



▲ 미륵사의 배치도

건립하는 기본 단위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경주 황룡사와 불국사, 그리고 익산 미륵사에 있어 탑과 사찰 배치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찰의 배치가 탑의 기단부에 기준을 두고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황룡사 구층탑의 기단을 내접하는 직경 80척의 원에 6배를 곱한 크기가 사찰의 동·서 길이에 해당되고, 미륵사의 경우에는 동원(東院)과 서원(西院)은 석탑 기단부에 3배를 곱한 크기에 해당되며, 중원(中院)은 목탑 기단부에 3배를 곱한 크기에 해당되는 등 정교한 수치 계산을 기초로 사찰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인 8세기경의 대표적 사찰인 불국사의 경우 다보탑과 석가탑의 기단 너비인 14.6자의 3배인 43자가 불국사를 배치하는 기본 척도로 사용되었다.

탑의 크기는 대웅전 크기와 연관

그렇다면, 기단부의 크기가 탑의 높이와 너비, 대웅전의 크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불국사 석가탑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감은사지 동·서탑(국보 제112호)은 삼국통일을 성취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부여 정립사지 5층 석탑과 황룡사 9층탑의 기와지붕, 그리고 분황사 모전탑의 지붕돌 계단 등의 특징을 살려낸 창조적인 디자인이었다.

이 창조적인 디자인은 고선사지 석탑(국보 제38호)을 거치면서 당시의 최고 건축기술과 융합하여 불국사 석가탑이란 결과물로 탄생하여 한국 석탑의 표준 모델로 정립되었다. 불국사 석가탑을 한마디로 '삼국시대 석탑의 완성형이자 한국 석탑의 시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되어 있다. 석탑의 층수는 탑신부에 있는 지붕돌이 몇 개인지를 세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불탑은 2층·4층·6층·8층 등 짝수로 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3층·5층·7층·9층 등 홀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탑의 층수가 홀수로 만든 것은 불교교리나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 동양의 우주관이나 음양오행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리대전(性理大全) 율여신서(律呂新書) 권 1에서는 ‘천지의 수는 1에서 시작하여 10에서 그친다. 1·3·5·7·9는 양이며, 9는 양의 완성이다. 2·4·6·8·10은 음이며, 10은 음의 완성이다’고 하였다. 홀수는 양의 수이다. 장소로 볼 때 상(上)·전(前)·고(高)에 해당하며, 인사(人事)로 볼 때 귀(貴)·존(尊)·길(吉)·복(福) 등에 해당한다. 짝수는 음이다. 양의 반대인 하(下)·후(後)·저(底)·천(賤)·비(卑)·흉(凶)·화(禍)에 해당한다.

3은 완전성을 갖춘 수로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를 표상한다. 또한 3은 삼양개태(三陽開泰)·복록수삼성(福祿壽三星)·세한삼우(歲寒三友) 등에서 보듯이 길상의 의미를 지닌 수로 인식되었다.

5는 1에서 10에 이르는 중간 수이며, 목(木)·화(火)·수(水)·금(金)·토(土)의 오행에 응하는 수이다. 7은 천(天)·지(地)·인(人) 삼재와 사시(四時)를 상징하는 수이며 북두칠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1



2

1 경천사지 10층 석탑 2 정혜사지 13층 석탑

9는 양의 완성된 수이다. 구천 등과 같이 많다는 뜻으로도 쓰이며, 9는 구(久)와 발음이 같다는 연유로 장구(長久)의 의미를 갖기도 하며, 존귀·길상의 상징 부호로 쓰이기도 한다.

짝수층 탑은 홀수층 더한 결과

예외적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이나 원각사 10층 석탑과 같이 10층 석탑이 있는데 이는 3층과 7층 석탑의 합친 것이다. 이들 탑 역

시 평면이 아(亞)자형을 이루는 아래 부분의 3층과 일반형 석탑과 같이 방형으로 된 윗부분의 7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홀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3층의 지붕돌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3층과 4~10층 부분을 경계 짓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탑이 홀수의 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한 길상(吉祥)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비단 탑뿐만 아니라 사찰의 입지 선정이나 불전의 칸 수 설정, 단청의 배색 등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불교교리나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탑에 오행사상을 근거로 한 도식화된 수가 적용되어 있는 것은 탑이 불교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음양오행사상이 지배했던 당시 사회의 문화적 토양에서 자란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나라로 향해하는 길목 전남 해남 달마산 미황사

한반도의 땅끝마을 전남 해남, 그곳에 솟구쳐 있는 해발 489m 달마산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바위 명산이다. 특히 달마산의 기암절벽과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안 절경들은 한마디로 한폭의 그림이다. 남도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달마산의 서쪽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천년고찰이 바로 미황사이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다는 것으로도 많이 알려진 미황사는 우리나라 불교 해로 유입설을 뒷받침하는 고찰로, 신라시대 의조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1627년 세운 '미황사사적비'에 적힌 설화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8년(749)에 돌로 만든 배 한척이 달마산 아래 사자포구에 와서 닿았다고 한다. 배 안에서 하늘의 음악과 범패소리가 들려 가까이 다가가면 번번히 멀어져갔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의조화상이

제자들과 함께 정성껏 기도를 올리자 비로소 배가 바닷가에 와서 닿았다고 한다. 배 안에는 주조한 금인(金人)이 노를 잡고 서 있었으며 화엄경, 법화경 등 경전과 비로자나, 문수보살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날 밤 의조화상의 꿈에 금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본래 우전국(인도) 왕으로서 경전과 부처님을 모실 곳을 구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르러 산 정상을 바라보니 일만불(一萬佛)이 나타나므로 여기에 온 것이다. 마땅히 소에 경을 싣고 소가 누워 일어나지 않는 곳에 경을 봉안하라”고 일렀다.

의조화상은 꿈에 지시한대로 소에 경을 싣고 나갔다. 소는 가다가 한 번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달마산 산골짜기에 이르러 다시 누우며 ‘미’ 하고 크게 울며 죽어버렸다. 이후 소가 처음 누웠던 곳에는 작은 암자를 세워 통교사라 하고, 소가 누워 죽은 골짜기에는 미황사를 짓고 경전과 부처님상을 봉안하였다.



▲ 험준한 달마산을 배경으로 우뚝 서있는 미황사 대웅보전



▲ 단청을 하지 않아 더욱 고풍스러운 대웅보전



① 미황사 들머리 계단
② 대웅보전 뒤편의 조망. 넓게 펼쳐진 땅끝마을 들판이 시원스럽다.

여기서 미황사(美黃寺)의 '미'는 소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황'은 배 안에 있던 금인의 황금빛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미황사 창건설화는 불교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서 바로 전래되었다는 남방전래설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다.

미황사는 창건 이후 절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82년 대웅전 복원공사 때 발견된 1754년(영조 30)에 기록한 '미황사법당중수상량문'에 보면 조선시대의 역사는 비교적 자세히 전하고 있다.

상량문에는 정유재란 이후 3차례의 중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1751년(영조 27)에 덕수스님이 시작한 세 번째 중창 때에는 보길도에서 목재를 실어와 대웅전과 나한전을 완공하는 등 12개의 암자와 가람 20여동의 거대한 사찰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해진 절을, 1989년 지운스님과 현공스님, 금강스님이 차례로 주석하면서 명부전, 삼성각, 만하당, 달마전, 부도암 등을 복원하고, 퇴락한 세심당을 재건하는 등 10여 년간 중창불사에 나서 옛 모습을 복원했다.

달마산의 병풍 같은 바위들을 배경으로 한 대웅전은 보물 제947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응진당은 보물 제1183호이며 보물 제1342호로 지정된 괘불은 높이 10m에 달하는 대형 불화이다.

미황사의 바다는 부처님 세계이며, 부처님 나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황사에는 부처님 나라로 향해하는 배에 승선하기 위한 중생들의 발원과 수행의 흔적이 사찰 곳곳에 남아있다. 대웅보전에 4개의 초석에는 게와 거북이, 자라들이 바다 속에서 노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다. 부도전에는 거북이, 자라, 가재, 게 등 바다 물고기와



노루, 토끼, 다람쥐, 새, 사자, 말 같은 동물, 그리고 연꽃과 화초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다른 사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미황사는 서해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한다. 수려한 달마산에서 연출하는 노을은 환상 그 자체이다. 미황사에서는 매년 12월 31일 노을맞이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특히 산사에서 보는 달마산의 기암괴석과 울창한 산림이 펼치는 풍광은 일품이다. 특히 산사 입구부터 달마산 전체로 퍼져있는 동백숲은 우리나라 최고라고 한다.

미황사를 찾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달마산 정상이다. 대웅전 뒤편으로 보이는 달마산 정상까지는 약 40분 거리이다. 정상에서는 사방으로 멋진 풍광이 펼쳐진다. 동쪽에는 강진·장흥 일원의 내륙과 완도 주변

이 눈에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진도 일대의 다도해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산줄기를 걸으며 줄곧 시원한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미황사 가는 길

승용차 88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빠져나와 목포 방향으로 1번 국도를 타고 나주방향으로 간다. 나주에서 13번 국도를 따라 해남읍을 거쳐 땅끝 방향으로 향한다. 또는 남해고속도로와 목포광양간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순천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벌교, 보성, 장흥, 강진을 지나면 해남에 도착한다.



- ① 파워포럼 회원 일동이 흥겨운 노래 한마당을 선사하고 있다
- ②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절을 올리는 회원들
- ③ 잔치 후 파이팅을 외치는 회원들과 어르신들
- ④ 파워포럼 연합회장 정안식 회장의 노래 공양
- ⑤ 주지 실상스님께 후원금을 전달하는 정안식 회장
- ⑥ 회원 대표로 인사를 하는 정안식 회장
- ⑦ 잔치 후 기념촬영을 한 파워포럼 회원 일동
- ⑧ 회원들과 어르신들의 합동 춤 한마당
- ⑨ 경로잔치 전 주지스님과 협의하는 파워포럼 회원들

파워포럼 주관 제42회 경로잔치 흥겨운 한마당

지난 10월 12일 1천명 초청 제42회 경로잔치 한마당이 파워포럼 주관으로 법왕사 종합복지관 공방에서 병행하였습니다. 이날 잔치를 주관한 파워포럼은 대구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연구와 봉사활동 모임으로 회원과 가족등 50여분이 잔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잔치에서는 포럼 회원들이 손수 장만한 음식과 선물, 경품을 푸짐하게 베풀었고 신명나는 뒤풀이 공연도 펼쳐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법왕사 소식

운불련 불자들 정기법회 봉행



운불련 소속 불자 3백여명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 법왕사 종합복지관 만불전에서 이달 정기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법왕사 영일스님이 법문하였는데 운불련 회원들은 이 밖에도 매번 법회시 많이 참석하면서 보살계 수계법회 시에는 단체로 참여하여 법석을 채웠습니다.

10월 20일, 송광사-원등사-위봉사 이동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10월 20일 호남의 고찰인 송광사 - 원등사 - 위봉사로 삼사순례 이동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법당을 벗어나 남도의 고찰을 순례하며 불심을 가다듬었습니다. 특히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사찰로 오랜 역사와 웅장한 가람, 고려시대에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승가 교육기관이 최고로 불자들은 꼭 참배해야 하는 도량으로 많은 분들이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백고좌법회 49재 봉행

지난 10월 21일 입재한 제25회 백고좌법회 49재가 여법하게 봉행 중입니다. 입재에는 2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조상영가와 선망부모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였는데 49재는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12월 9일 회향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파워포럼 주관 제42회 경로잔치 봉행



지난 10월 12일 1천명 초청 제42회 경로잔치 한마당이 파워포럼 주관으로 법왕사 종합복지관 공양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잔치를 주관한 파워포럼은 대구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연구와 봉사활동 모임으로 회원과 가족 등 50여분이 잔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잔치에서는 포럼 회원들이 손수 장만한 음식과 선물, 경품을 푸짐하게 베풀었고 신명나는 뒷풀이 공연도 펼쳐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중앙절 합동차례 봉행

법왕사에서는 중앙절인 음력 9월 9일, 10월 13일 위패를 봉안한 불자들 100여 가족이 동참한 가운데 합동 차례를 올렸습니다. 이날 차례에 동참하신 신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가위에 차례를 지내지 못한 분들로 예로부터 추석 대신 차례를 올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법왕사 소식

송담스님 친견 및 화두 수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10월 6일 불자들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5회 백고좌법회 36일차 특별법회로 인천 용화사 송담 큰스님 친견 및 화두, 불명, 심선계 수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불자들은 평소 친견하기 힘든 송담스님의 법어와 함께 화두와 심선계를 수지하였습니다.

혜연스님의 사찰요리 2기 개강

법왕사에서는 사찰 요리 전문가 혜연스님을 초청, 사찰요리 제2기 강의를 10월 8일 개강했습니다. 사찰음식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최적의 요리로 각광받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혜연스님의 정통 사찰요리는 가족의 건강에 큰 보탬을 줄 것입니다.

원공 정무 대종사 2주기 추모다례제 봉행

법왕사 회주이신 원공당 정무 대종사 2주기 추모다례제가 지난 10월 7일 본당 각령단에서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주지스님은 안성 석남사의 추모제에 참석하였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고득점 위한 7일 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201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수능 7일 기도를 11월 1일에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7일 회향합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은 영험 있는 기도도량인 법왕사에서 정성껏 기도 올리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백고좌법회에서 지장신앙을 주제로 법문하신 법안스님께서 '희망과 구원의 노래' 지장경 법문 CD 60개를 법공양하였습니다.

- 10월 11일 탄공스님께서 지도하는 사찰요리 제1기 강의가 종강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3개월 동안 35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10월 8일에는 제2기 강의를 개강하였습니다.
- 불교대학 가을학기 초급, 중급, 고급반, 경전반, 참선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본당 석불전에 새롭게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여 30여평의 아늑한 공간을 마련, 참선, 문화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 오는 11월 18일 10월 상달 야외 산신단에서 산신대재를 봉행합니다. 단체와 사업체의 기도접수를 기다립니다.
- 10월 5일(토) 음력 초하루에 '참수행'을 주제로 백고좌법회 초청법사로 법문하신 덕정스님의 법회 장면이 불교TV에서 촬영하였습니다.
- 10월 8일 해인사 회랑대 경성스님께서 화엄경 세주묘엄품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 10월 2일 백고좌법회 32일차에 혜경 큰스님께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법문하였습니다.
- 11월 1일부터 BBS TV에서 백고좌법회 후반부 법회장면을 촬영, 방영합니다.
- 지우스님께서 '신명나는 회심곡' CD 36개를 법공양 하셨습니다.
- 2014년도 달력을 주문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단체의 보시를 기다립니다.
- 새 부전스님으로 지현 비구니 스님이 10월 10일 부임하였습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해인사 학감 해인스님 400부
파워포럼 연합회 300부 홍공덕심 300부
법안스님 5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구 법우님의 장녀 하나 양의 결혼식이 10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최은영 법우님의 결혼식이 10월 26일에 있었습니다.

박경자 법우님의 차남 혁식 군의 결혼식이 11월 3일에 있습니다.

김정희 법우님의 장녀 손지혜 양의 결혼식이 11월 9일에 있습니다.

박병기 법우님의 장남 휘 군의 결혼식이 11월 30일 남산예술원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보시하신 분

● 108 통장
이동근 1,101,887원

● 물품 보시하신 분
이정현 50만원

● 요양원 후원 하신 분
이대길 사과 1BOX 장윤직 이불 2채
김현정 이탁군 휠체어 5대 박경훈 1만원
박종성 1만원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최명숙 무기명 35,150원 신지원 81,520원
이광진 6만 9천원

공양 올리신 분

● 떡공양
박준표 5만원 김현향 10만원 이세정 3만원
신재영 5만원 이현주 2만원 양혜영 5만원
배수현 직접 이대해궁 3만원 김민지 직접
장승은 3만원 김상한 직접 신임선 5만원

안준영 12만원 이세정 직접 정시영 직접
강석윤 3만원 김정성 직접 서미경 3만원
조만규 3만원 백수영 3만원 윤다경 직접
유정일 직접 이영미 5만원

● 공양미(1포 20kg)
김정윤 1포 윤건불심 1포 이점례 1포
장우성 1포 장시덕 5만원 김주현 5만원
김선유 3만원 김갑진 1포 이세정 1포
김길재 1포

● 과일공양
권정화 5만원 김상한 바나나 직접
이현주 2만원

● 대중공양
홍세미 김밥, 생수 직접

● 초공양
김영숙 2만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용화선원 이동법회 공양 올리신 분

홍유식 음료수 4BOX 박해진 바나나 1BOX
권숙자 생수 100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경로잔치 공양 올리신 분

이정상 빵 500개 서미경 요구르트 100개
이상학 돼지고기 10kg 김남숙 돼지고기 20kg
수경문 요구르트 300개 심규암 쌀 1포
상인동보살계(권기정, 이복순, 김장분, 이정화, 황춘연, 박경자) 나무젓가락, 종이컵 정반 외
채차연 쇠고기 10만 상당 김태영 쇠고기 10만 상당
백대행심 양념류 부창떡집 떡 1말
김기수 10만원 강현호 3만원 이해영 5만원
최태희 3만원 윤강덕화 3만 5천원
정민우 5만원 이길우 3만원 신현수 10만원
정시영 3만원 김수희 3만원 관음회 10만원
장우성 5만원 심임선 5만원 권혁일 5만원
정입분 10만원 김정희 1만원 이재학 2만원
신장희 10만원 김다비 5만원 김다솔 5만원

신범해 5만원 정광춘 5만원
KT진여회 자원봉사 휴지 10만원 상당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삼사순례 공양 올리신 분

신현수 밥공양 4만원 이대해궁 음료수 50개
황춘연 떡 50인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왕생극락하옵소서

- ◆ 정지은 법우님의亡남편후인 김해 김공 준용 영가님의 초제가 10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윤용 영함 영가님의 막제가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사수진 법우님의 亡자모유인 해주 오氏 연옥 영가님의 기제사가 10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 이나경 법우님의 亡엄부후인 전주 이공 기홍 영가님의 기제사가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조성찬 법우님의 亡엄부후인 한양 조공 영가님의 초제가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이태수 법우님의 亡자모유인 옥산 전氏 순이 영가님의 초제가 10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정무스님 2주기 추모다례제가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 ◆ 중앙절 영가 함동 제사가 10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백고좌 영가 49세 입재가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축원 올리신 분

- 수능기도 축원
장승은
- 제2해오름요양원병원 한평불사 축원
김정국 200만원 박성호 200만원
오광진 200만원 송재호 100만원
이강복 20만원 문원미 100만원
김다솔 김단비
- 백고좌 백일기도 축원
유용재
- 백일기도 축원
이현우 이성은 안명희 장재혁 임익성

- 심규암
- 해오름 요양원 후원 축원
김영일 유혜경 백옥수 손미옥 정경석
- 삼존불 불사 축원
김정윤 서민관 서미경 서미희
- 생일축원
여택동 김태영 박성주 이영희
- 본당 석불전 불사 축원
최재훈 5만원

● 불사
정광춘 요령 2개 세광하이테크 촛대, 다기
조철재 불기

● 축원
이지연 주지스님 방송취취하신 후 10만원을 보시하셨습니다.
서영범님의 시험합격발원축원
김수중님의 시험합격발원 축원
서영범님의 약사시험합격발원 축원
심규암님의 백일기도 회향축원
심동원님의 가족건강발원 축원

11월 7일이 수능기도 회향일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학업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법왕사 계좌번호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해오름 소식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오니 주위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봉사 씨포터즈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비가 내리는 곳은 날이었지만 씨포터즈와 함께 하는 야외 나들이로 흥플러스 대구스타디움점에 다녀왔습니다.

참사랑 공연단



어르신들이 흥겨움에 절로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되는 참사랑 공연단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신명나는 한마당 공연에 어르신들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듯 합니다.

녹색환경봉사단



어르신들의 공간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녹색환경봉사단 가족들의 땀과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헤어샵



박정숙 헤어샵에 근무하시는 미용사분들께서 휴무를 반납하시고 매월 둘째 주에 미용봉사를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헤어스타일이 더 멋스러워지셨어요!



해오름 게시판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9월)

◎ 수입내역		
박연경 1만원	윤광숙 5천원	진봉희 1만원
김예분 1만원	김주희 5천원	박명숙 1만원
신임선 5천원	최복례 1만원	박정목 1만원
권봉자 3만원	이호동 5천원	정활수 3만원
오금옥 1만원	최경순 1만원	박대희 5천원
성외련 2만원	이남희 1만원	고연숙 1만원
안삼준 2만원	강선옥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상덕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김임태 5천원
김유진 1만원	이경숙 5천원	최분규 1만원
정시영 1만원	유명옥 1만원	권보령 2만원
김기덕 2만원	홍세림 1만원	이임숙 2만원
홍새미 1만원	박귀분 1만원	조규인 1만원
권명원 1만원	사공관 1만원	정금용 1만원
이성자 5천원	김원형 3만원	채옥연 5천원
박순영 5천원	배수현 2만원	임익균 1만원
신돈식 1만원	곽순복 2만원	여택동 5천원
김진성 1만원	이종희 5천원	심종순 5천원
안경순 1만원	이경숙 5천원	장인숙 5천원
홍새미 1만원	권오성 1만원	한규매 5천원
강심규 5천원	정연이 5천원	박태숙 5천원
이인순 5천원	박창목 5천원	김봉숙 5천원
이현우 1만원	오난옥 5천원	이은주 1만원
이정례 1만원	문정애 2만원	이병희 1만원
여축동 1만원	김순란 3만원	노귀자 5천원
신구자 5천원	이정옥 1만원	조영석 1만원
정무시 1만원	박학순 1만원	김정임 1만원
김정희 1만원	권숙자 1만원	윤순희 1만원
현영희 1만원	김미옥 2만원	강영도 2만원
김수라 1만원	이정훈 1만원	양나영 5천원
삼규암 5천원	정광춘 5만원	김정자 5천원
여축동 1만원	김기수 2만원	신혜경 5천원
구정대 2만원	류윤만 1만원	김순태 1만원
안명희 1만원	김민주 1만원	황미선 2만원
현인숙 1만원	노수정 1만원	권계화 1만원
장우성 1만원	김정순 3만원	이강복 1만원
이은희 5천원	권영희 5만원	우포정사 1만원

합계 1,225,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393,590원
- 기저귀 구입	554,000원
- 업무용차량주유	100,000원
- 약품구입	54,800원

9월 총 사용내역 1,170,390원

잔액 54,610원 (2013년 9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980개
- 김명희 봉사자 : 호박죽 30인분
-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3box, 두유 24개
- 한울식 어르신 보호자 : 캔커피 1box, 요구르트 15개
-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사과 20kg 1box, 박카스 2box
-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230개
-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미나리호소 3병, 배 1box, 바나나 1손, 배 3개, 키위 1팩, 순대 외 3팩
- 차수환 어르신 보호자 : 롤케익 3개, 사과 8개
-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 크리피스롤 1box
- 정금화 어르신 보호자 : 미에로화이바 10개
- 김덕순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1손, 포도 2송이, 야구르트 30개, 쌀과자 1box, 후르츠쿠키 1통, 양말 10켤레, 요플레 40개, 요구르트 30개, 떡 3되
-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빵세트 1상자, 산수유 1box
- 남분한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2box, 두유 3box
- 이복순 신도회장 : 호박죽(40인분)
- 장분이 어르신 보호자 : 롤케익 1개
- 장태순 어르신 보호자 : 빵 4개
- 정잠분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현금 3만원
- 장어와 미꾸라지 : 추어탕 40인분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하신 분

- 10월 6일 : 씨포터즈 7명
- 10월 14일 : 박정숙헤어샵 4명
- 10월 20일 : 녹색봉사단 15명
- 10월 22일 : 참사랑공연단

요양원 소식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 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개발 시범사업 시행 중(2013년 9월 ~ 12월까지 5개월간)
- 박정숙 헤어샵 매월 둘째주 월요일 정기봉사 협약 체결
- 10월 16일 장기요양기관 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노진덕, 박정록, 서운수, 한을식
 요양보호사 : 강연숙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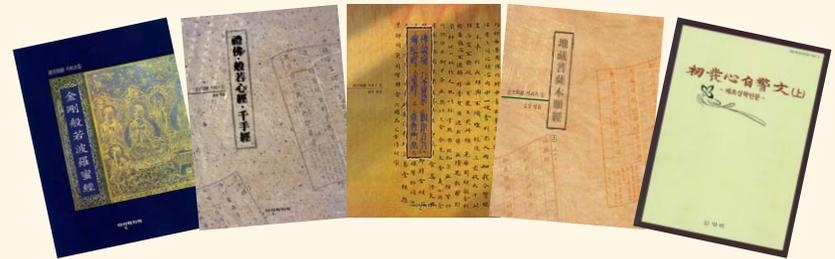
-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묘법연화경' 사경집, 일자 사경집,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집 발간



법왕사 사경집 '묘법연화경' 전 8권과 일자 사경집,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묘법연화경 사경집은 법화경 28품 전권과 법화경 약찬계를 수록하고 독음과 해설을 붙여 한자의 음과 뜻을 확실히 알고 베껴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한 장제본으로 꾸며 책의 품위를 더하여 소장가치도 높습니다. 일자 사경집은 모필체의 한자를 한자씩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여 사경의 본래 의미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자들이 늘 봉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8회 사경할 수 있는 일자 사경집도 발간하였사오니 수행정진에 큰 보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왕사 사경집 시리즈 안내



- 법왕사경 시리즈 ① 금강반야바라밀경
- 법왕사경 시리즈 ② 예불·반야심경·천수경
- 법왕사경 시리즈 ③ 아미타경·부모은중경·관세음보살보문품
- 법왕사경 시리즈 ④ 지장보살본원경(上·中·下)
- 법왕사경 및 한자공부 시리즈 ① 초발심자경문(上)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법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 053-766-3747)

제2해오름요양원·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봉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찬으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 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립니다)
- 문의 중무소(766-3747, 9088)
-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초급,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초급 주야간반을 비롯하여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 경전반을 개설합니다.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여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최근 돌아온 영일스님께서 '빨리 불교원전' 강좌를 3개월 과정으로 하며, 고급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활안 큰스님께서 5개월 과정으로 금강경을 강의합니다.

-  **초급반** 실상스님(법왕사 주지)
(주야간) 기초교리(10월초 개강)
-  **중급반** 영일스님(스리랑카 유학)
(3개월) 빨리불교 원전(8월말 개강)
-  **고급반** 활안스님(설법제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5개월) 금강경(7월 4일 개강)

-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

-  **생활역학과 풍수지리반**
- 강사: **홍순영** 선생님
- 약력: 한국역학인총회 고문
대한풍수학회 회장
동양문화연구원 원장
-  **서각**
- 강사: **신임선** 선생님
- 약력: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 시간: 매주 화, 목
- 회비: 3개월 20만원(재료비 별도)
-  **사찰음식 2기 개강**
- 강사: **혜연스님**
- 일시: 2013년 10월 1일(화) 오후 2시
- 약력: 향적원 사찰음식 전문점 개점
대구 미래외식 경영원 사찰음식 강의
현대백화점 대구점 '산사의 아침' 개점
사찰음식 제조협회 이사
-  **다도**
- 강사: **김정규** 선생님
- 약력: 청화다례원 원장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합창단**
- 강사: **정무시** 선생님
- 약력: 영남대학교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대구시립합창단원
-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회비: 없음
-  **사물놀이**
- 시간: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  **선묵화**
- 강사: **법주스님**
- 대상: 스님, 일반인
-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